

알뜰폰 약진...망 늘리며 영토확장



2곳 이상 이동사 망 선택으로 고객 대거 유치

이동3사 자사 망 써달라며 애원 '위상 변화'

'반값 통신료'를 내세운 알뜰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최근 2곳 이상의 이동통신사 망을 쓰는 '멀티 알뜰폰 사업자'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특정 이동사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이동사 망을 복수로 선택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LG유플러스 망을 빌려쓰던 중소 알뜰폰 업체 머천드 코리아(브랜드명 마이월드)는 지난달부터 KT 망으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쪽 알뜰폰이 LTE 중심이라면 SK텔레콤·KT는 3G에 주력한다. 머천드 입장에서는 LTE와 3G 고객을 한

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KT가 최근 자사의 전국 지역 대리점을 KT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에 개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 계열 한국케이비텔레콤(KCT)과 협력해 알뜰폰 사업을 하는 서경·울산·푸른·남인천·금강·제주방송 등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기존의 SK텔레콤 외에 LG유플러스와도 망 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이들 SO는 그동안 모회사격인 KCT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독자 행보에 나서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멀티 망은 법·제도적으로 2012년 알뜰폰 사업 출범 당시에도 가능했지만 알뜰

폰 시장의 앞날이 불확실한데다가 사실상 갑으로 군림하는 소속 이동사의 간섭 때문에 사업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이마트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기존 SK텔레콤 망에 LG유플러스 망을 추가하며 멀티 망 사업의 물꼬를 텄고, 올 초에는 아이즈비전(SK텔레콤·KT), 에스원(KT·SK텔레콤), 홈플러스(KT·LG유플러스), 프리텔레콤(SK텔레콤·KT) 등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사업을 개시한 지난 1월 고객유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멀티 망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3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멀티 망 사업자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머지않아 멀티 망이 알뜰폰 시장의 대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이동사 브랜드 선호도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을 이끌 수 있고 판매 기반도 확장·강화할 수 있어 불리할 게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동 3사 망을 모두 쓰는 사업자도 조만간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사 망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동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사 망에 들어와 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IT강국' 한국, 웨어러블엔 냉담

5개국 소비자 관심도 조사 중국·미국에 비해 떨어져

바야흐로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기기 시대를 맞고 있지만, IT강국인 한국의 소비자들 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미국·중국의 소비자들보다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GfK가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독일의 스마트폰 사용자 5000명을 상대로 스마트워치 사용 기준 등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워치의 자동차 제어 기능에 대한 관심은 한국 소비자의 경우 43%만이 '관심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과 미국 소비자는 64%와 52%가 관심을 보였다. 영국(33%)과 독일(32%) 등 유럽 소비자들보다는 높았지만 중국·미국에 비해서는 스마트워치 기능에 대한 관

심도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 스마트워치의 흠 제어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는 LG전자가 통신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LG워치 어베인 LTE'로 아우디 자동차를 제어하는 시연 행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스마트워치를 고르는 기준으로 가격(2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능(14%), 활동 측정성(14%), 정확도(10%), 사용 편의성(10%), 디자인(8%), 브랜드(8%) 순으로 답했다.

스마트워치의 브랜드를 고르는 기준으로는 IT전자업체 등 테크 브랜드를 고른다는 응답이 65%로 스포츠 브랜드(18%), 명품 브랜드(8%), 패션 브랜드(6%)보다 훨씬 높았다.

연합뉴스

"갤럭시S6 엡지, 67kg 압력에 수리불가 뒤틀림"

美수리업체 휘어짐 테스트

삼성 "내구성 문제없다" 반박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6 엡지가 '벤드게이트(Bendgate)'를 겪은 아이폰 6 플러스처럼 휘어지며 더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보증 수리 전문업체 '스퀘어트레이드'가 최근 진행한 내구성 테스트 결과, 갤럭시S6 엡지에 149파운드(67.6kg가량)의 압력을 가하자 수리할 수 없는 정도로 구부러지고 작동이 멈췄다. 반면 아이폰6 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같은 방식의 시험에서는 179파운드(81.2kg)의 압력에서야 비슷한 정도로 파손됐다.

다만 기기를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지 못할 수준으로 휘어지는 압력 정도는 갤럭시S6 엡지와 아이폰6 플러스 모두 110파운드(50kg)로 같았다. 스퀘어트레이드는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 버클리)가 계

발한 로봇인 '벤드봇'(Bendbot)을 사용해 시험을 진행했다. 이 로봇은 사람들이 뒷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끌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기기가 얼마나 견디는가를 시험하도록 고안됐다.

CNN머니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실험 결과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IT기기 전문 리뷰어를 비롯한 네티즌들이 아이폰6 플러스에 맨손으로 힘을 가하면 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잇따라 공개해 '벤드게이트'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전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스퀘어트레이드 관계자는 "업체들이 더 큰 화면에 얇은 두께를 갖춘 스마트폰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기들이 휘고 부러짐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 영상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50kg의 하중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 하에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하



갤럭시S6 엡지

것이며 스마트폰 앞뒷면을 구분해 주머니에 넣는 사용자가 없는 만큼 테스트가 현실을 반영하려면 뒷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갤럭시S6 엡지는 자체 테스트 결과 앞면과 뒷면 모두 일반적 사용환경을 초과하는 하중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낙하, 휨, 충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제품 내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 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2안이 10월1일 '단말기규정 개정안(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패션 트렌드의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더불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패션업계까지 긴장할 정도다. 각각각색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패션관련 앱을 소개한다.

셀렉트샵 29CM/제작 : 29CM/아이폰, 안드로이드

29CM은 패션트렌드를 반영하여 갤러리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고품질의 패션 사진들과 공유하기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패션코디네이트 WEAR/START TODAY/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양한 패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200만건 이상의 방대한 코디자료와 더불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저장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나의 코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기능도 갖췄다.



남자패션코디 플랫폼 MAPSSI/MAPSSI/안드로이드

남성만을 위한 패션을 찾는다면 맵시를 이용해보자. 인기 있는 남성 스타일을 확인하고 패션디자이너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DESIGN ZOOZS 제공: 디자인즈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zs.com)

신축 원룸 매매

관심물건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대리식사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7억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2채 무화과 식재있음(토지310평) 매매가3억

062) 527-76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올수리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원지구 모이골7일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전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2만

010-6670-9800
010-7384-7800

수완지구 사무실 임대 매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대지 210평 (1층 6칸)
- 건물(2층2칸), 학원적합

※ 2층주택살면서 상가수익가능

매매가 3억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평가 6억6천, 최자가 3억6천
-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5백
- 남구 노매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2천
-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북구 두암동 (3층상가겸 주택) (198㎡, 건물 512㎡)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 광신구 소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자가 3억7천
- 서구 쌍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자가 3억7천
-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자가 2억 1천
-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자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북구 일곡동 (1층 패셔닝)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자가 28억
- 북구 매곡동 (1층 조림사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1억
-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9억6천, 최자가 3억9천
- 장성 삼계면 (2층건물) (토 1088㎡, 건물 631㎡) 감평가 2억5천, 최자가 9천1백
- 담양군 금성면 (3층펜션건물)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자가 9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역사장)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자가 85억
-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1억3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초개강)

- 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 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① 오전반 11시~12시 30분
② 오후반 2시 ~ 6시 사이
③ 저녁반 7시 ~ 9시
④ 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토목~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자가 3억7천
- 담양군 금성면 (펜션)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자가 9억9천
- 북구 두암동 근린 주택 3층 감평가 3억9천 → 최자 3억9천

062-527-7600
010-7384-7800